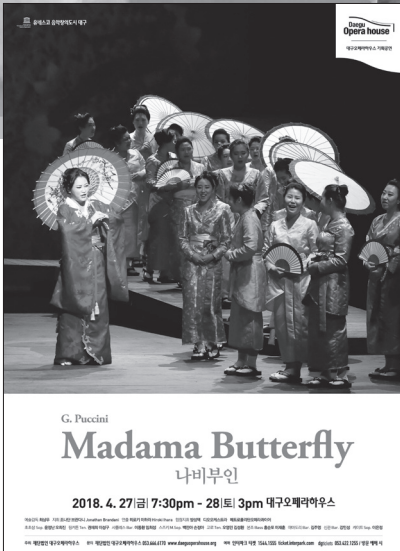


공연전시소개

# 4 월의 공연



preview



## 4월 봄날처럼, 애절한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 Madama Butterfly>

대구오페라하우스는 푸치니 3대 걸작 중 하나인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보인다. 20세기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사랑에 빠진 당하고 끝내 자결하는 초초상(나비부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양의 5음계를

반영한 유려하고 애절한 음악이 더해져 오늘날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다. '미미, 토스카에 관한 애정과 나비부인에 대한 애정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푸치니에게도 각 별한 작품으로 알려진 <나비부인>의 이번 프로덕션은 회전 장치를 활용한 입체적이고 상징적인 무대에 일본의 최고 연출가 히로키 이하라의 연출이 더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대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미네소타 오페라극장의 부지휘자 조나단 브란다니(Jonathan Brandani)가 지휘를, 전국을 무대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윤정난과 오희진이 초초상을 맡았으며, 한국 최초의 베를린 도이치오페 전속 바리톤 이동환 등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들이 4월의 봄,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4.27-28 대구오페라하우스

## 화려하고 관능적인 프랑스 오페라의 미학

### J. Massenet 오페라 <마농 Manon>

프렌치 스타일의 섬세하고 화려한 미학을 대표하는 오페라 <마농>은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Jules Massenet 1842-1912)의 대표작이다. 프랑스 소설가 아베 프레보의 자서전적 작품 「기사 데 그리외와 마농 레스코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오페라 <마농>은 귀족 출신의 데 그리외 기사와 평민 출신의 소녀 마농의 격정적인 만남과 사랑을 다룬다. 사치와 향락,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오직 사랑과 유희만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젊고 매혹적인 마농. 그녀의 짧고 뜨거웠던 삶과 변화무쌍한 심리적 갈등이 작곡가 마스네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고 관능적인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전체 5막 구성의 전막 오페라 공연으로 3시간이 넘는 대작이다. 이번 국립오페라단 프로덕션에서는 출연진 외에도 세계 오페라 무대의 정상급 제작진의 참여로 의상과 무대에 세련되고 감각적인 뉘앙스를 입혀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출은 2016년 리투아니아 오페라발레 국립극장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이스라엘 국립오페라가 공동 제작한 <마농>의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은 프랑스의 명연출가 뱅상 부사르가 맡는다. 무대 디자이너 뱅상 르메르, 의상 디자이너 클라라 펠루포 발렌티니와 함께 화려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세련된 프랑스식 미장센을 선

보일 예정이다. 지휘는 낭시 오페라 및 낭시 심포니 리릭 오케스트라, 로렌 국립오페라 예술감독을 거치며 <아라벨라>, <예누파>, <탄호이저>, <라트라비아타>, <피델리오>, <피터 그라임스>, <시몬 보카네그라> 등 다양한 오페라 레퍼토리를 섭렵,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 자리매김한 세바스티안 랑 레싱(현 미국 샌안토니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맡는다.

출연진으로는 주인공 마농 역에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프랑스 오페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파사로이우와 한국 소프라노 손지혜가 맡아 열연한다. 불 같은 사랑에 빠져드는 순수한 영혼의 기사 데 그리외 역은 스페인 테너 이즈마엘 요르디와 유럽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테너 국윤종이 맡는다. 레스코 역의 바리톤 공병우, 데 그리외 백작 역의 베이스 김철준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신호진, 이지혜, 메조소프라노 김윤희, 테너 노경범, 바리톤 문영우, 베이스바리톤 윤규섭 등이 참여한다.

#### 4.5-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2018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오페라 <토스카> Live 중계

‘2018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의 공연 프로그램인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를 라이브 중계 상영한다.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 1967년 창설한 음악제로 기독교 명절인 종려주일 하루 전 토요일부터 부활절 월요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는 행사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생전 마지막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공연작이기도 한 오페라 '토스카'는 전 3막의 비극적인 멜로드라마다.

푸치니 오페라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토스카'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술성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 받는 작품이다. 특히, 치밀하고 극적인 구성과 하룻밤 안에 펼쳐지는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간결하지만 심리적으로 영리하게 배치된 음악 연주는 작품을 한 편의 음악 스릴러로 완성한다.

이번 중계 상영작 <토스카>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호프만스탈의 연극 '에더만'을 연출했던 오스트리아의 명연출가 '미하엘 슈투르밍어'의 참여로 다시 태어난다. 또한, 카라얀의 제자이기도 한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가 주관 오케스트라로서 참여한다. 작년에 이어 부활절 페스티벌의 헤로인이 된 '안야 하르테로스'가 토스카로 분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세대 스페인 테너인 '알렉산드르 안토넬코'가 보여줄 '카바라도시'와 '스카르피아' 역을 맡은 바리톤 '뤼도빅 테지에'의 모습 또한 주목된다. 코엑스, 센트럴, 신촌, 목동, 킨텍스, 분당, 광주, 서면 등 전국 메가박스 8개 지점에서 2018년 부활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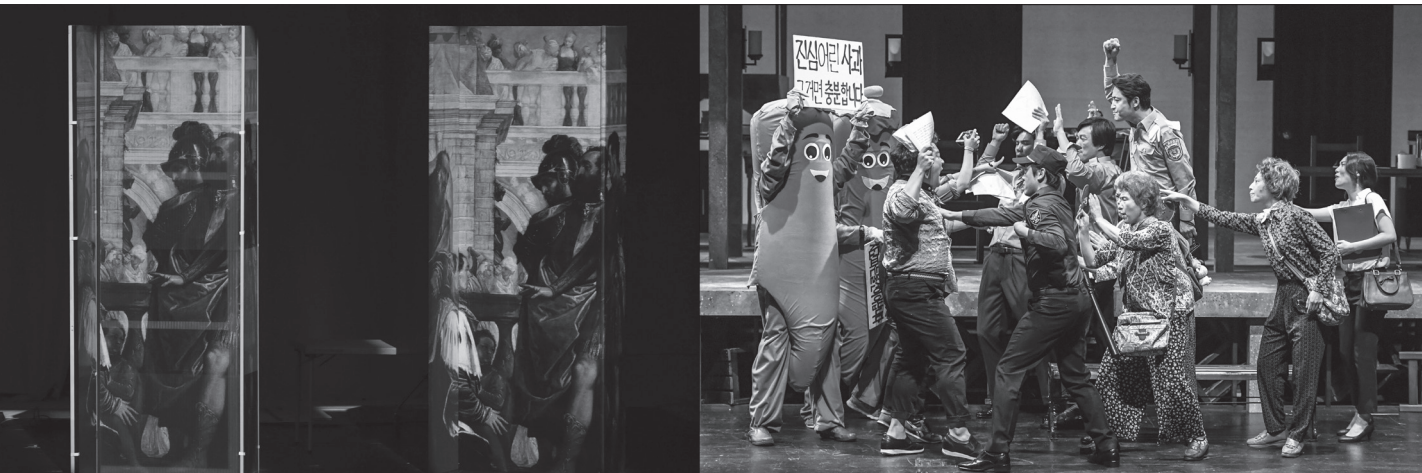
오는 4월 1일 상영된다. 러닝타임은 125분이며, 티켓 가격은 3만 원이다.

#### 4.1 메가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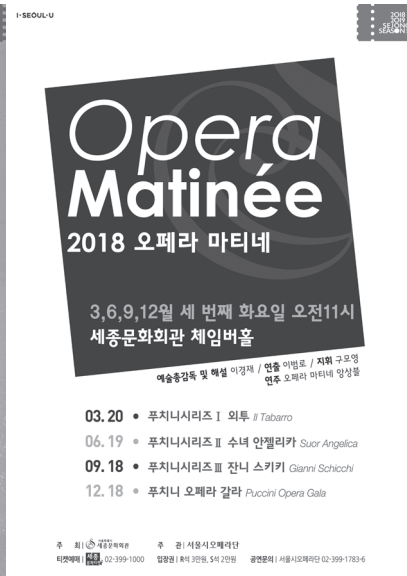
### 서울시극단 창작극 <옥상 밭 고추는 왜>

서울시극단(예술감독 김광보)은 4월 12일(목)부터 22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창작극 <옥상 밭 고추는 왜>를 재공연한다. 2017년 10월 초연한 연극 <옥상 밭 고추는 왜>는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와 한국연극에서 선정한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초연작 부문에 선정돼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갈등을 '옥상 밭 고추'라는 사소한 사건을 매개로 포착한 시선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지어진지 20년 이상이 된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배경으로 하는 <옥상 밭 고추는 왜>는 고추 텃밭이 있는 옥상과 주요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간결하면서도 영화적 화면 분할 같은 무대로 만들어내 지난 1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의 '한국문화공간상' 무대디자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 관객의 뜨거운 앙코르 요청으로 돌아온 <옥상 밭 고추는 왜>는 김광보 연출, 장우재 작가와 함께 초연 무대에 올랐던 고수희, 이창훈, 이창직, 유성주, 최나라, 이지연 등 원년 배우가 다시 모여 관객을 찾는다.

#### 4.12-22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 해에는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의 시리즈 공연으로 계획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섬세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낸 18세기 작곡가 푸치니(G. Puccini)의 3부작 <일 트리티코(Il Trittico)>와 푸치니 오페라 갈라로 꾸민다. 3월 20일에는 일트리티코의 <외투>, 6월 19일에는 <수녀 안젤리카>, 9월 18일에는 <잔니 스키키>가 공연되고 12월 18일에는 <푸치니 오페라 갈라(Puccini Opera Gala)>로 진행한다.

푸치니 생애 마지막 완성작인 <일트리티코(Il Trittico)>는 세 개의 단막오페라 모은 3부작이란 뜻으로 <외투(Il Tabarro)>, <수녀 안젤리카(Suor Angelica)>, <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만으로는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각각 죽음을 은폐한다는 공통의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외투>에서는 불륜의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와 폭력으로 묘사되는 사실주의 오페라를, <수녀 안젤리카>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수녀가 구원 얻는 모습을, <잔니 스키키>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욕심과 음해를 일삼는 인간상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각 작품 모두 1시간

정도로 짧게 구성되어, 각기 다른 줄거리와 함께, 탄탄하게 응축된 푸치니의 음악이 돋보인다.

### 달빛 아래 하얀 튀튀들의 슬픈 사랑 발레 블랑 <지젤 Giselle>

<지젤>은 백색 발레(Ballet blanc)로 통한다. 꽃잎처럼 흩날리는 순백의 튜튜를 입고, 부드럽게 내려뜨린 가느다란 팔과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체로 공기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윌리’들을 보면, 왜 ‘백색 발레(ballet-blanc)’라고 불리는지 알게 해준다. 전 세계 발레팬이 <지젤>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푸른 달빛 아래 공기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윌리’들의 군무가 만들어내는 정적이면서도 별빛처럼 영롱한 장관은 보는 이들에게 벽찬 감동을 선사한다.

귀족신분의 남자와 평범한 시골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승고한 사랑’을 주제로 19세기 문예사조에서 찬미했던 초자연적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요정, 윌리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와 영적 세계와 현실의 비극적 사랑을 주로 다룬 낭만발레는 <라 실피드>, <코펠리아> 등이 있으며, <지젤>은 그 정점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낭만발레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이 작품에서



는 여주인공 '지젤'이 보여주는 극적인 연기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젤'은 1막에서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순진무구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광란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2막에서 영혼 '윌리'가 된 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극적이며 섬세한 캐릭터 변화를 선보인다. 2018년 <지젤>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주역들을 비롯해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 정상급 발레스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믿고 보는' 수석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이동탁,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와, 올해 초 수석무용수로 승급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홍향기와 미국 털사발레단에서 화려하게 귀환한 수석무용수 이현준 그리고 발레단에 둠지를 튼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 출신의 수석무용수 조이 위막(Joy Womack)과 마밍(Ma Ming)까지 스타군단이 함께 한다. 여기에 한국이 배출한 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과 퍼스트 솔리스트 예카테리나 오스몰키나(Yekaterina Osmolkina)가, 영국 로열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의 매튜 골딩(Matthew Golding)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상임객원 수석무용수 나탈리아 쿠쉬(Natalya Kushch)가 각각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 4.6-15 유니버설아트센터

## 예인(藝人) 장녹수라 불러다오!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장녹수전>

장녹수는 그동안 '조선의 악녀, 희대의 요부' 등의 수식어로 불리어 왔다. 장녹수와 연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진 문화 콘텐츠 속에서 장녹수가 '요부'로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 <궁:장녹수전>은 장녹수가 조선 최고의 예인(藝人)이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란 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궁:장녹수전>에서는 장녹수와 연산의 관계의 또 다른 인물로 '제안대군'을 등장시킨다. 정동극장(극장장 손상원)은 2018년도 새로운 제작공연 <궁:장녹수전>(안무/정혜진, 연출 오경택)을 오는 4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오후 4시 상설공연으로 올린다. 이번 작품은 창작 초연으로 전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정혜진 안무가와 오경택 연출이 손을 잡았다. 미술감독 박동우, 영상디자이너 정재진, 조명디자이너 신 호, 의상디자이너 이호준, 소품 디자이너 김상희, 분장디자이너 김중환 등 분야별 대표 스태프진이 의기투합했다. 한국의 전통놀이와 기방문화, 궁 문화를 '장녹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한자리에 모은다. 정월 대보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답교놀이'는 등불춤과 함께 소담스런 서민 놀이문화를 흥겹게 펼친다. 백성들이 연산과 장녹수를 풍자하며 노는 '정업이 놀이'는 경기도당굿의 사람크기만한 허수아비 인형 '정업이'를 활용해 전통적인 놀이양식을 곁들여 창작했다.

기방에 들어가 본격적인 기생 수련에 몰두하는 장녹수는 기생들과 함께 장고를 둘러메고, 장단과 함께 빠른 춤사위가 어우러진 '장고춤'을 선사한다. 한량들이 추는 '한량춤', '교방 살풀이' 등 흔히 만날 수 없었던 '기방문화'가 펼쳐진다. 조선 최고 예인, 장녹수가 선사하는 우리 춤의 아찔한 매력,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장녹수전>은 4월 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주간(~4/14일까지)의 프리뷰 기간을 가지며, 12월 29일 토요일까지 4시 상시 공연된다.

문의) 정동극장 02-751-1500